



쩍새와 딱새

김길찬
공증인 · 변호사



토요일 오후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젊은 남녀가 내 옆에서 있었다. 남자가 주로 이야기를 하고 여자는 듣는 편이었다. 비좁은 지하철이라 그들 옆에서 있다 보니 본의 아니게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남자는 여자에게 “나는 음식을 잘 하는 편이에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일 나가시면 나 혼자서 요리를 해왔기 때문에 음식을 잘 해요. 그런데 설거지, 아니 빨래하기는 싫어해요.” 라고 하니, 여자가 빨래하기도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 같았다.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노라니 우리나라 젊은 남자들도 가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진화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변호사를 처음 개업한 무렵 선배 변호사로 부터 찍새 변호사와 딱새 변호사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다. 찍새 변호사는 사건을 수입해 오는 변호사이고, 딱새 변호사는 그 수입한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라는 것이다. 원래 찍새와 딱새는 구두땀이들이 구두를 모아오는 사람을 찍새로, 구두를 닦는 사람을 딱새로 칭했던 것인데, 그 선배는 이를 변호사의 경우에 비유하여 말한 것 같다. 나는 혼자 사무실을 운영하여 찍새와 딱새의 역할을 모두 하여야 했지만, 변호사 여러 명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변호사 중에는 모

든 대학교의 대학원 과정을 다니고 각종 모임에 가입하면서 주로 사건 수임에만 능력을 발휘하는 짝새 변호사들도 있었다.

나는 짝새와 딱새의 역할이 가정에서도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밖에서 돈을 벌어드는 것은 짝새의 역할이고, 집에서 애들을 키우고 살림을 하는 것은 딱새의 역할이다. 예전에는 짝새의 역할과 딱새의 역할이 비교적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밖에서 돈을 벌어드는 것은 주로 남자들의 역할이었고,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것은 주로 여자들의 역할이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오면 큰일이나 나는 것처럼 남자 아이들을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였다.

요즘은 그 역할이 크게 달라졌다. 여자들도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고, 남자들도 배우자를 정할 때 직장에 다니는 여자를 선호한다고 한다. 이처럼 여자들도 대부분 짝새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 집안의 딱새 일을 종전처럼 여자들에게만 맡긴다면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그러니 요즘 젊은 남편들은 부엌에도 들어가야 하고, 아이들도 돌봐야만 하는 것 같다.



나이가 많은 남자들 중에는 이런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떻든 그들은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이니까. 당연히 그들은 혼자서 사는 경우라면 몰라도 부인과 함께 사는데 부엌에 들어가거나, 청소하는 일에 거부반응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일주일쯤 전에 우리 공증사무실에서 있던 일이다. 나이가 오십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사무실에 먼저 들어 왔다. 그 남자가 전화를 몇 번 하니 그의 부인이 “쪽 팔리게 공증은 무슨 공증이냐”고 하면서 마지못해 들어온다. 부인은 들어온 후에도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됐지 공증은 무슨 공증이냐며 한동안 남편과 옥신각신한다. 결국 ‘앞으로 이혼을 요구하지 않는다. 돈도 달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공증해주고는 더 이상 남편에게 관심이 없다는 듯 충충히 사라져 간다.

혼자 남은 남편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도 모두 집에다 갖다 주고 애들도 다 키워 놓았는데, 퇴직 후 돈을 안준다고 이혼을 하자는 게 말이 되냐?”는 등 푸념을 한참 동안 늘어놓는다. 그의 표정은 이런 상황이 몹시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된다는 표정이었다.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다.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는 생물만이 살아 남는다’는 말이다. 밀림의 왕자, 사자도 늙어서 기운이 떨어지면 무리에서 밀려나서 결국 굶어 죽는다고 한다. 남편이 퇴직하여 더 이상 찍새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정에서 종전과 같은 대우를 받기는 어렵다. 남편이 이 원칙을 무시

하고 퇴직 후에도 집안 일은 전혀 안하면서 그동안 처자식을 부양하느라고 고생한 것이 얼마인데 하는 생각만으로도 버텨다가는 험한 꼴 당하기가 십상인 세상이다.

우리 주위에 퇴직한 사람들을 보면,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 재빨리 설거지할 때 쓰는 빨간 고무장갑을 끼



고 딱새로 훌륭하게 변신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요즘 유행하는 ‘졸혼’이라는 말처럼 부부가 이혼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거의 남남처럼 사는 것이 좋다는 사람들도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을 했던 내 친구처럼 매달 꼬박꼬박 적지않은 금액의 연금이 나오는 사람들은 아직도 집안에서 비교적 융숭한 대접을 받는 것 같다.

우리는 오랫동안 학교를 다녔지만 학교에서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지는 못하였다. 또 이런 것은 현실 세계에서 배워야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세상은 빨리 바뀌었으나 우리의 의식세계는 이를 쉽게 따라가지 못한다. 불행히도 이제 60대가 된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남자도 가정에서 딱새 역할을 하여야만 하는 변화에 처음으로 직면하는 세대들이다.

나는 4년 전부터 서울에서 당진으로 내려와 공중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주말에만 서울 집으로 올라가는 주말부부이다. 다행히 당진에서 혼자 살다보니 요리도 배웠고, 세탁기로 빨래 할 줄도 알고, 청소기로 청소할 줄도 안다. 나름 경쟁력있는 남자다. 나의 의식세계와 허리병이 아직 집안 일에 호의적이지 않다. 내가 공증인을 퇴직한 후에도 이렇게 집안 일을 외면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그 때 닥쳐서 생각하여야 할 문제인 것 같다. 

